



즉시 배포용: 2023년 11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RUTH WESTHEIMER를 새로운 명예 고독 대사로 임명

명예직을 상징적인 토크쇼 진행자에게 수여해 인식을 제고하고 주 전역에서 중요해지는 문제에 대한 대응법을 뉴욕 주민에게 권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은 다양한 신체 및 정신 보건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돌연사 위험 증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Ruth Westheimer 박사를 전국 최초로 고독 대사(Ambassador to Loneliness)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징적인 토크쇼 진행자는 명예직을 수락하며 모든 연령의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독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도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고독은 인지력 저하, 불안, 우울, 심혈관 질환, 면역 약화, 치매, 돌연사 등 다양한 신체 및 정신 보건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고독이라는 사회적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예 고독 대사인 Ruth Westheimer의 조언은 의사의 권고와 같습니다. Ruth Westheimer 박사는 고독에 대응하고자 하는 고령자와 모든 뉴욕 주민을 도울 것이며, 저는 그를 전국 최초의 명예 고독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돌연사할 확률은 32 퍼센트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Ruth 박사 같은 리더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Westheimer는 성치료로 명성을 얻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로 활약했습니다. 작년 95세의 브롱크스 주민은 뉴욕주 ‘대사’가 되어 뉴욕 주민들에게 고독과 분리,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Ruth Westheim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오후 Hochul 주지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화로 제게 전국 최초의 고독 대사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주지사에게 뉴욕 주민의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5세 이상의 고령자 1/3 이상이 고독을 경험하며, 65세 이상의 약 1/4가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립 과학 공학 의학 연구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의 [최근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고독은 사회적 활동의 양에 관계 없이 홀로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 비만, 신체 활동 부족 등 기타 치명적인 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돌연사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을 50 퍼센트 가량 높이며, 사회적 관계가 양호하지 않아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 상태일 경우 심장 질환 위험이 29 퍼센트, 뇌졸중 위험이 32 퍼센트 증가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연령 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정신 보건 의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지사는 오늘 고령 뉴욕 주민들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나이들어가면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최초의 [노령화 마스터 플랜\(Master Plan for Aging\)](#)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NYSOFA\)](#)은 현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T)와 협력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지역사회 개발, 교통, 기타 모든 뉴욕 주민이 고령에도 사회적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 정책을 권고합니다. 지난 여름 노령화 마스터 플랜 위원회와 권고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으며, 2025년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은 Hochul 주지사의 [랜드마크 10억 달러 계획](#)을 추진하여 회계연도 2024 주 예산의 일환으로 5월 도입된 뉴욕주 정신 보건 진료 지속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진행되는 계획에는 외래 환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본금 6,000만 달러와 운영 자금 1억 2,160만 달러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뉴욕 주민이 불안 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 보건 문제를 가졌을 때 이에 대해 사회적 오명을 부여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뉴욕주는 [공인 지역사회 행동 보건 클리닉\(Certified Community Behavioral Health Clinics\)](#)의 수를 세 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클리닉은 정신 보건 또는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는 뉴욕 주민이 거주지, 지불 능력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클리닉은 2025년 7월까지 13곳에서 39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노령화 사무국 국장인 **Greg Ols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대중은 Ruth Westheimer 박사의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솔직하지만 우아하게 우리가 누구이며, 복잡한 세상에서 타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연령의 뉴욕 주민과 교감하며 숨겨진 공중 보건 문제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책임자는 Ruth Westheimer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대담하고 역사적인 임명 결정을 내려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Ruth

Westheimer 박사가 이미 뉴욕주 고령화 사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고독과 고립에 대응하고 모든 연령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보건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 보건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고령자의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부모님을 잃고 토크쇼 진행자로 명성을 얻은 **Ruth Westheimer** 박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에 딱 맞는 인물이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고독이라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국적 아이콘과 함께 모든 뉴욕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연령에 상관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